3040세대 퓨전법회 '함께해요'

광주 선덕사, 남난희 이근후 박사 등 전문가 초청 문화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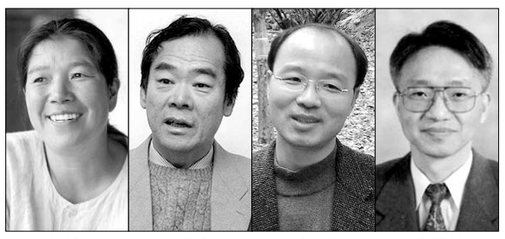
명상과 살아가는 지혜가 어우러진 젊은 이웃을 위한 퓨전법석이 열린다.

생활불교도량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포교 사각지대로 알려진 젊은이를 위해 문화강좌 '함께해요! 삶의 지혜'를 마련하고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문화강좌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부부갈등, 자녀교육, 먹거리 등의 문제에 대해 이들 전문분야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초청해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를 등정한 산악인 남난희씨의 '산을 내려와야 또 다른 산이 보인다'(19일)를 시작으로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20일), 김미옥 영양사(해남생협 이사장)-'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26일), 이대병원 이근후 명예교수(가족아카데미 이사장)-'부부간에도 도(道)가 있다'(27일), 금강대 최종석 교수-'감동이 묻어나는 웰빙의 삶을 위하여'(5월3일) 등의 이야기마당이 꾸려지고 5월 4일 닫는 마당으로 전주 예술고 조나엽, 신지선 양의 '남도소리여행 함께 떠나요'가 펼쳐진다.

선덕사는 강좌에 앞서 부민 스님의 지도로 웃음명상, 자비명상, 걷기명상 등 명상 체험을 하고 강좌 후에는 초청강사와 마음나누기로 질의응답을 갖는다.



남난희 이근후 이경재 최종석

부부갈등, 자녀교육 등…명상 체험도

이번 문화강좌를 마련한 주지 행법 스님은 "3~40대 젊은 이웃의 고민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제별로 풀어가는 이야기 마당을 마련했다"며 "젊은 이웃들이 함께해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62)263-4660

이준엽 기자

현대미술 감상하며 '꿈' 키워요

백양사, 청소년 위해 3월31일부터 70여점 전시

사찰 성보박물관이 문화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마련해 화제다.

백양사 성보박물관(관장 법선 스님)은 장성지역 초,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현대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개관기념 3회 특별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일환으로 열리며 국내유명 작가의 작품 70여점이 출품된다.

백양사 박물관은 작품감상과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시대의 풍경' '색채의 향연' '매체의 다양성' '미술속의 유머' '삶의 미술' 등 5가지 주제로 전시한다.

박물관장 법선 스님은 "풍부한 감성을 심어줘야 할 시기에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현대미술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전통사찰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져 색다른 체험을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 박물관은 전시기간동안 현대미술 강의와 문화학교,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하며 불교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061)392-7566

이준엽 기자

청주시 '직지' 세계홍보 본격화

'세계직지문화협회' 22일 창립…출판, 축제 등 전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 빼어난 불교문화유산인 직지를 세계에 알릴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청주시는 3월 22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사)세계직지문화협회 창립총회를 열어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장(前 국무총리)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모두 8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자치단체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직지전략 연구원'을 설립하고 직지포럼 개최, 직지 관련 고인쇄 출판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직지 세계화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지금까지 청주시가 맡아 온 직지축제와 직지상, 직지 찾기 등의 사업 등도 전담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광주 무각사, 린포체 초청법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오는 4월 10일 대웅전에서 텐징 장양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한다.

무각사 대웅전 부처님 개금불사와 후불탱화 조성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마정수기 법회에는 티베트에서 3번째 환생한 린포체와 티벳 스님들이 초청되어 티베트불교 의식으로 펼쳐진다. 무각사는 마정수기 법회에 이어 4월 11일 개금불사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갖는다. 석가모니 불상에는 신도들이 사경한 <반야심경>이 봉안된다. 이준엽 기자

하남 정심사, 단청불사 회향

하남 정심사(주지 원영)가 3월 24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9주년 및 대적광전 단청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택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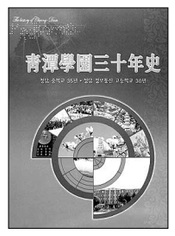
유철주 기자

'청담학원 30년사' 발간

평택 청담중·정보통신고를 운영하는 청담학원(이사장 혜자)이 <청담학원 30년사>를 발간했다.

청담학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발간된 <청담학원 30년사>에는 30년 동안의 학교발전사를 연대별로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각 학교의 교육 및 불교활동과 특성화·인재육성 전략 등도 담았다.

청담학원은 1965년 故 청담 스님이 '실달 학원'을 세운 후 1974년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이 청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했다.



강지연 기자

옥천사암련, 독도 망언 규탄

충북 옥천사암연합회를 비롯한 32개 옥천 시민사회단체는 3월 23일 조헌선생 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가두행진과 집회를 가졌다.

옥천사암련 회장 지원(가운데)·총무 혜철(오른쪽) 스님 등 사암련 스님과 신도 100여명은 태극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몸에 감은 채 '제국주의 드러내면 아시아국 뭉쳐진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백련사

"봉사로 똘똘 뭉쳤어요"

백련사의 사회봉사단체인 백련자비원은 매주 월~금요일 독거 어르신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백련사 주지 설산 스님은 매일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챙겨드린다.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자비원.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30평 규모의 식당에 꽉 들어찼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이면 백련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어르신들에게 밥과 국을 가득 담은 식판을 직접 테이블에 가져다 준다.

백련사가 이렇게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한 지 꼭 1년 째. '사단법인 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백련자비원'을 발족한 뒤 본격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뛰어든 백련사 주지이자 백련자비원장인 설산 스님은 자원봉사자 150여명과 함께 백련사를 '봉사하는 사찰'로 자리매김 시켰다.

'봉사하는 사찰'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무료급식 때문만은 아니다. 무료합동결혼식, 장학회 운영, 불우이웃돕기, 재난구호 등 백련사의 봉사활동은 다양하다. 무료합동결혼식은 1년에 3~4차례 정도 열리는데, 이들에게는 드레스, 신부화장, 사진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28년째 운영되고 있는 천불장학회는 지역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급한다.

삼풍백화점 참사와 경기도 연천·파주 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련사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구호작업을 벌였고,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은 매달 양로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의 후원을 해오고 있다.

백련사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가 세운 1300년 된 고찰로, 기도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면면히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도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봉사도량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쉼터 같은 사찰'로 가꾸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백련자비원 주축 활동 다양…장학회 28년째

'편안한 절' 위해 24시간 개방·공간 마련 계획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백련사는 조만간 사찰을 24시간 개방할 방침이다. 누구나 와서 편안히 기도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당 외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휴식처 같은 사찰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다. 설산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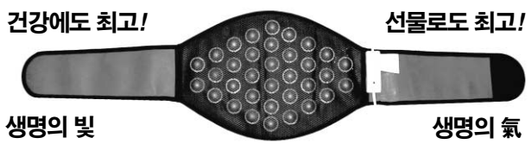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스스로가 존경받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백련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www.paengryontemple.or.kr (02)303-0024

한명우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비만과 배가 찬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북한 3대 특산품인 세계 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강력한 열과 생명의 광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가 있어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숨만 쉬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변비, 복부비만, 소화불량. 만성위염. 어깨, 허리, 무릎 결림등이 자연 치유된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는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쑥뜸의 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원적외선 "침"의 효과로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피부에 접촉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하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3210-3170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비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북한산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소원도 꼭 이루고 건강에도 최고 북한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강한 氣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석이 생산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어 대중 포교를 일으키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 사용하세요.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1set 225.000원

108.12	195.000원
108.손목	160.000원
12.손목	110.000원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신제품 금강바이오니아 108. 손목염주도 판매합니다.

金剛念珠社 문의전화 (02)723-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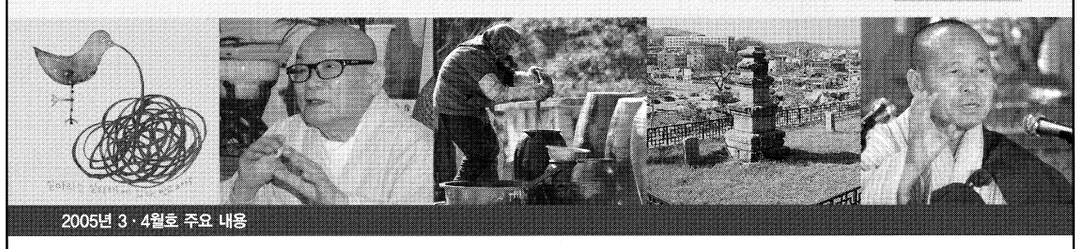
직영매장 이화불교사 TEL (02)720-1700,734-1383 (불교용품일체 도,소매)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표지 그림
근원 김양동의 전각 작품 봉정사 일주문(鳳停寺 一柱門)



2005년 3·4월호 주요 내용

교리 | 지혜의 샘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기초교리) 종범 스님의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① 초기의 가르침 - 삼법인·사성제·팔정도
지상중계 | 대구 법왕사 경율론 삼장 법고좌법회(각성 스님의 『화엄경』「십주품」) "선수행을 올바로 하려면 교리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집 | 세계 불교국가들의 종단 운영체계와 한국불교
세계 불교국가의 승단 운영 체계 및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세속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현행 한국불교의 종단체계 및 운영의 문제점, 특히 불교 승풍(僧風)이 상실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본다.
남방불교국가들의 종단 운영 현황
중국과 티베트의 종단 운영체계
일본 주요 종단(승단)의 운영 현황
달라져야 할 조계종단의 운영 방향
제도개혁보다 의식개혁이 먼저다

수행 | 마음공부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게 듣는 修行閑談
대구 보광선원 조실 화산(華山) 스님 "수행이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Q&A | 수행 의문을 묻고 답한다 2
화두참선 수행 - 의정(疑情)은 무엇입니까?
위빠사나 수행 - 부처님께서 위빠사나로 수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화 | 불교와 문화가 만나는 곳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2 양구 흥덕사 장 담그는 날
문화기행 | 떠도는 성보 2-탑(塔), 불교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사람 | 아름다운 사람들
향기나는 사람들의 모임 | '피안사회복지관 자비회' '과천 새벽기도모임'
서양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명상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두 학자, 허버트 벤슨과 존 카밧 진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